

개방형 혁신을 도입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사례 연구

Case Study of Idea Support Platform based on the Open Innovation

현 미 환, 김 완 종*, 서 태 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공유센터

Hyun mi-hwan, Kim wan-jong*, Seo tae-sul**

Korea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개념을 적용한 아이디어 지원 서비스 사례 연구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 요소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방형 혁신의 개념을 도입한 국내의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나 홀로(stand alone) 창업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혁신형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사업화·창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학이나 벤처, 개인 등 지식 창출의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혁신 활동의 핵심인 지식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기업에서는 혁신을 위해 이러한 외부의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도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따라 개방형 혁신의 개념을 도입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 시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개념을 적용한 아이디어 지원 서비스 사례 연구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 요소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Henry Chesbrough(2003)에 의해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개방형 혁신은 그동안에 내부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술혁신활동을 이제는 외부 혁신주체들과 협력하여 외부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의 성과를 높이지는 것이다[1].

한국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현황에 대한 복득규(2008)의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탐색-연구개발-확산의 3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의 개방형 혁신 정도는 탐색과 협력의 수준은 해외 기업과 비슷한 정보지만, 확산

단계의 수행 비율이 낮다고 분석하였다[2]. 이창근(2015)은 개방형 혁신을 공공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강병수(2013)은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는데[4],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사례 분석을 통해 개방형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사항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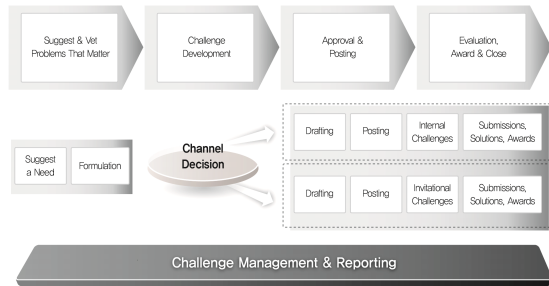
III.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사례 조사

아이디어를 가진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한 창업을 하려면 자금, 인력, 설비, 기술 등의 난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국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창업 이전 단계에서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해외에서는 제품 개발과 제품 개선을 위해 대중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플랫폼은 이노센티브(Innocentive), Y 콤비네이터(Y-Combinator) 등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에도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1. 해외 사례

이노센티브(Innocentive)는 전 세계 200여개국 20만명 이상의 엔지니어, 과학자, 발명가들이 참여하여 불가능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플랫폼이다. <그림 1>은 이노센티브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나인시그마(NineSigma)는 20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문제 해결 전문가 네트

워크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다.



▶▶ 그림 1. 이노센티브의 프로세스

캐글(Kaggle)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기계학습과 통계학을 기본으로 다양한 전략과 알고리즘을 구사하여 ‘시합(competition)’이라는 모델을 통해 집단지성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 해외의 주요 플랫폼 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해외 주요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현황

구분	특징
이노센티브 (InnoCentive)	풀리지 않는 문제에 봉착한 기업이나 정부(Seeker)가 현상금을 걸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Solver)이 도전하도록 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현상금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소싱 사이트
Y 콤비네이터 (Y-Combinator)	멤버인 8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플랫폼
나인시그마 (NineSigma)	전 세계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의 문제 해결자를 확보, 200개 이상의 연구기관들과 협약을 맺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캐글 (Kaggle)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들이 특정문제의 해결법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
테크숍 (TechShop)	창업에 필요한 첨단 제조설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을 시제품 제작 관련 기반 서비스를 제공
오픈 아이디어 (Open IDEO)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위해 전 세계 디자이너의 생각을 모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플랫폼

2. 국내 사례

I-connect은 자체 R&D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시장대응이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제품·완제품 또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사이트를 통해 제안 할 수 있으며 채택될 경우 제안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사업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 사례는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주요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현황

구분	특징
Idea Audition	해외 클라우드 소싱 Quirky 와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곳으로 더욱 더 손쉽게 이용
I-connect	기업이 외부의 지식·기술을 연결, 개발하는 연구방식으로 제품 개발에 관한 기술뿐만 아니라 LG생활건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
사물인터넷 아이디어센터	DIY 환경 지원,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물인터넷 분야 교육 지원, 제품 설계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ICT 분야의 창업·사업화 및 외진출까지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IV. 결론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살펴보면,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이벤트가 많아 향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마련 필요하다. 국내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은 대부분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 멘토링, 미래 시장 정보, 시제품 제작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한 해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첨단 기술 정보, 멘토링, 훈련을 제공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이디어 지원을 위해서는 각 개인별로 상이한 아이디어 상황을 맞춤형으로 강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1] CHESBROUGH, Henry, et al. Open innovation. 2003.
- [2] 복득규; 이원희. 한국 제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현황과 효과 분석. 삼성경제연구소이슈 페이퍼, 2008, 1.
- [3] 이창근; 강대신; 정선양. 개방형혁신의 공공연구부문 적용방안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5, 164-173.
- [4] 강병수; 전중양; 정선양.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3, 135-147.
- [5] 공영일. 소셜 제품개발 플랫폼, 퀴키 (Quirky). 2013.